

선생님의 뒤를 많은 분들이 이어나가길

가와타 가오루 박사

가와타 박사는 제1회 국제신과학심포지엄 강사로 한국에 왔었으며, 그후 뜻으로 추산 선생님과 절친해 지셨습니다.

박 영철 선생님은 한국이 낳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박 영철 선생님께서는 어떻게하면 한국인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늘 생각하고 행동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들 인간이 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모든 삶의 문제를 마음에 깊이 새겨두어야만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셨습니다.

부처님이나 예수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모든 인간의 욕망에 집착해서는 안된다던가,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무엇을 위해서 인간이 태어났는가는 묻지 않았습시다.

한편, 17세기이후 데카르트에서 시작된 유럽의 사상가들도 인간은 어떻게 살 것인가 밖에 풀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미 보이고 있는 물질문명을 오늘의 모습으로까지 발전시켰지만 21세기에 이르러 결국 정신문명을 뒤로 제쳐두고 왔기에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미국문명에 젖어든 생활을 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 자신이 후회하고 있지만, 이런 가운데 박 영철 선생님께서는 세계각국을 돌아다니시며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가를 모색하셨습니다. 한국사람들의 행복에서 시작해 세계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하신 선생님의 뒤를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이어나갈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川田 薫 (가와타 가오루) 박사약력

1982년-1983년 과학기술위원회위원 (21세기의 세계를 리드할 기술 선택회의)

1984년 과학기술청 극한기술평가위원 (초고압)

1991년 신기술사업단 "사키가케연구 21" 테마 [실리케이트 사면체가 생체에 미치는 영향]

1994년 12월 "사키가케연구 21" 완료

1995년 1월 (유)가와타연구소 스타트

◎ Dr. Park Yong Chul

Dr. Park 先生は韓国が生んだ偉大な先生です。

Dr. Park 先生は、どうすれば韓国の人たちが幸せな人生を送って行けるのかを何時も考え、かつ行動していらっしゃいます。それには、先ず自分たちが何故生かされてきたのか、どのように生きていくべきなのか、そして死んだらどうなるのかという全人生の問題をしっかりと心に生かさんといふなければならぬということも明確にしていらっしゃいます。

お釈迦様やイエスキリストは、正しい人生を送るためには、あらゆる人間の欲望に執着してはいけず、とか人を救済しようとかいって続けられたが何んのために人間が生かされてきたのかはわかりませんでした。

一方、17世紀以後デカルトから始まったヨーロッパの思想家たちも人間はどう生きたらいいか解明できなかった。その結果が眼に見える物質文明。今日の姿にまで発展させたのですが、20世紀に至って遂に精神文明を道徳的にしてしまつたために、すべての国の人たちがアメリカ文明にどっぷりつかつた生き方として今日を迎えています。

今ではアメリカ自身が悩んでいるのです。このように、Dr. Park 先生は世界中を巡り歩き、どうすれば人間が幸せになれるのかを模索していらっしゃいます。韓国の人たちの幸せから、世界のみんなの幸せまで求めている Dr. Park 先生は、一人でも多くの人が読んでいくことをぜひ望んでおります。

川田 董

◎ 研究課題

1. 人間の研究
2. 農業の研究

農業については韓国の趙漢廷先生 (TEL 445-32-8777) と共に自然農業の推進をしてあります。

◎ 住所

122-3, Nushinoki, Yagihashi, Tsukuba, 〒305-0482, Japan
KAWADA Research Corporation, Inc.,
TEL 0298-36-5025, FAX, 0298-36-5102.

가와다 박사가 보내온 글